

주제 : 제시문의 <은행업의 5대 트렌드>를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하고, 산업은행 차원의 방안을 논하시오.

은행업의 미래를 결정할 5대 트렌드가 제시됐다. 삼정KPMG는 최근 발표한 '은행산업에 펼쳐지는 디지털 혁명과 금융 패권의 미래' 보고서에서 ① 은행의 플랫폼화 ▲ ② 밸류체인인 언·리번들링 ▲ ③ 파트너십 확대 ▲은행의 AI(인공지능) 도입 본격화 ▲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대 등 <은행업의 5대 트렌드>를 꼽았다.

보고서는 유럽연합(EU)의 지급결제서비스지침(PSD2) 제정을 계기로 은행의 데이터 개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오픈 API를 통해 개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은행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. 보고서는 활성화된 플랫폼과 생태계를 보유한 은행이 미래 승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.

또 은행 밸류체인 영역 중 특정·단일의 서비스를 핀테크 기업이 특화해 제공함으로써, 은행의 밸류체인이 대체되고 잠식되는 언번들링(Unbundling)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. 기존에는 은행 한 곳에서 금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번들링(Bundling) 현상이 지배적이었으나,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결제, 송금, 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다. 보고서는 은행이 고객 접점과 관련 플랫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때 금융 생태계의 중심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.

〈사례〉

- ① 온라인 점포 ↓ / 시중은행 B2C 채널 점점 늘리기 위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개발 / 골드먼삭스 리테일 금융사업 확대
- ② 리번들링 ex) 케이뱅크 / 뱅크샐러드 / 토스-카카오 등
- ③ 시중은행의 핀테크 테스트 베드
- ④ AI 활용한 챗봇 및 로보 어드바이저 -> 대출 심사 및 모니터링까지
- ⑤ 데이터 기반 서비스 : 수출입은행, 데이터 플랫폼 구축 / JP Morgan

〈대응 방안〉

- 플랫폼화 : API 및 외부 기업 금융 데이터 개방 연계
- 리번들링 측면 -> B2C 채널 점점 강화
 - * 핀테크 기관과의 협업 / 단, 現 시장 마찰 이슈 ↓ 언급하면 ⊕
- Partnership -> 토스 등 빅테크 기관 협력, 영세 핀테크 - 선도 Player 간 협업의 場 BM
- AI -> Loan Monitoring / 新 기업 가치평가를 위한 산학-빅테크 협력
- 데이터 기반 서비스 : 비정형 데이터 수집 확대 (주식 데이터 등) + SaaS 클라우드 도입 등을 통한 데이터 FLOW 확대
- (공통) 전사적 차원의 서비스 고려